

한국사의 이해(6)

주제

동북공정과 발해, 석등

I. 중국의 동북공정과 발해사

1) 발해에 대한 입장

- 발해의 역사를 남기지 않은 고려
- 발해의 영토는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에 걸쳐 삼분된 채 점유

-중국: 말갈족이 중심이 된 국가로 당의 지방민족정권
-러시아: 말갈계 국가로 러시아 극동의 소수민족

▶ 다양한 입장 차이의 근거
→ 건국 시조 대조영의 出自에
대한 해석상 논란에서 기인
**<구당서>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
발해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 별종이나

**<신당서>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구려에 부용한 자이다

<신라고기>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씨니 남은 군사를 모
아 태백산 남쪽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 라고 한다(삼
국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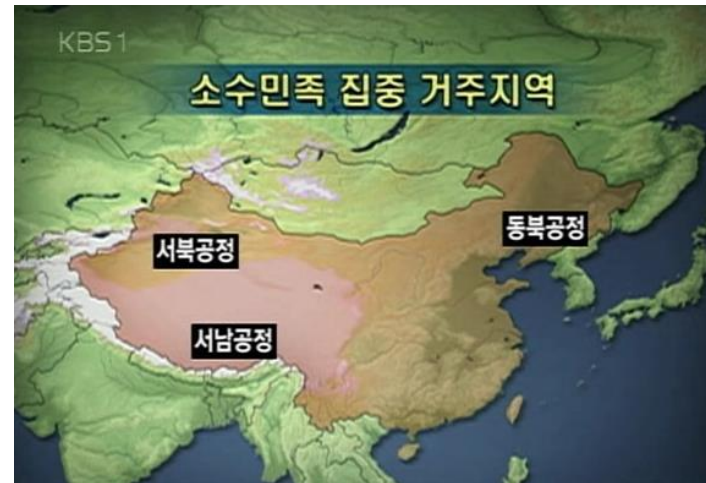
<제왕운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대
조영은 고구려인.

2) '동북공정'이란

- ▶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변강사지 중심'에서 추진하는
<동북변강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이라는 학술 프로젝트
-기간: 2002년 부터 5년간 공모 추진된 프로젝트

→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동북변경지역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역사를 소급해 역사를 규격화하는 역사공정



동북공정(東北工程)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
-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
-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
- 한국사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 공간적으로 한강 이남에 국한되게 되어 한국사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

3) 동북공정에서 발해

'현재가 과거를 이해하는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존재했던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 즉 중앙정부의 지방정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

① 발해 건축 초기의 정식 국호 '말갈'

- 713년 대조명을 좌효위원외대장군, 발해군왕, 홀한주도독으로 삼았는데, 이때부터 말갈이라는 호칭을 버리고 발해라고만 했다 (신당서 713년)

→ (반박) 발해는 처음에는 진국, 이후에는 고려 혹은 고려국
- 발해는 스스로를 처음에는 '진국'(구당서 698년)
- 일본과의 외교문서에 '고려국왕'(속일본기 758년).

② 발해는 당의 단순한 책봉국이 아니라 당나라의 발해군(지방정권)

-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발해가 선진적인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

→ **(반박)**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한 자주 독립국가

- 독자적인 연호 사용
- 황제라고 자처한 점
-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나라 과거시험인 빈공과에 응시

③ 발해사는 중국 당나라 역사의 일부

- 발해의 건국은 고구려 유민의 부흥운동의 결과가 아니며, 당나라 동북지방 통치책이 이완된 틈타 말갈족이 일으킨 정권으로 고구려 유민은 그 보조지위에 불과

→ **(반박)** 발해는 신라와 더불어 남국북시대를 이룬 한국사의 일부

- 발해 멸망 후 발해 유민은 고려국으로 귀부
- 중국 역사서에서 발해사를 외국열전에 수록

II. 발해 문화의 다양성

1) 발해문화의 고구려적 요소

- ① 지배층의 묘제인 **석실묘**는 고구려의 영향
- ② 고구려에서 계승된 **온돌유구**
- ③ 고구려의 **축성법**을 계승한 성

2) 발해문화의 말갈적 요소

- ① **罐(부)**: 입이 벌어지고 몸통이 긴 토기
- ② **토광묘**

3) 발해문화의 당문화 요소

- ① **벽돌무덤**(발해 중기 이후 왕실에서 일부 채용)
- ② 장안성을 모방한 **상경성**

III. 발해의 문화유산

1)정효공주묘

- 1980년 중국 길림성 용화현 용두산에서 발견
- 무덤 내에서 발견된 墓誌에 의해 792년 축조된 정효공주의 무덤으로 밝혀짐

▶ 묘지석

- 피장자가 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
- 공주가 792년 여름에 사망하여 그해 겨울에 부장

▶ 특징

- 발견 당시 지상에는 무너져버린 탑 형태의 건축 유적만 잔존
즉, 지하는 묘도, 묘문, 연도, 묘실이 축조되어,
무덤은 지상은 탑으로 지하는 매장부로 사용

- 발견된 유골의 상태로 보아 여성의 키는 156m, 남성의 키는 1.61m이며,
치아의 마멸된 정도로 보아 연령은 대략 25~45세 사이로 추정된다.
이들 남녀의 유골은 정효공주와 그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부부합장묘로 보고 있다.

▶ (구조) 墓塔式塼壁石頂墓

- 지하구조(묘)+지상구조(탑)+축조재료로 벽돌(벽)+판석(천장)

- 정효공주묘는 불교식 건축물인 탑으로 축조된 무덤
(발해 전통 무덤인 석실봉토분과 전혀 다른 구조/정혜공주는 석실봉토분)

→ 전탑으로 축조되었으면서 그 지하구조가 매장부로 사용
(탑을 왕실의 묘제로 활용)

- 당의 불탑과 동일한 구조

- 당의 무덤 중 불탑과 왕실의 묘제가 합쳐진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x

- 묘실천장이 평행고임천장(2단의 고임, 대형 판석으로 평천장)으로 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의 무덤 축조 기술이 계승된 것으로 보이지만,
축조재료가 **벽돌**이라는 점, 무덤이 탑으로 축조되었다는 점은
기존의 석실봉토분의 발해 무덤과 다르다.

2)영광탑

- 8~10세기에 건립된 발해의 오층전탑
- 소재: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발해 시대의 탑으로 확인
- 중국 동북 지역에서 연대가 가장 오래된 탑



3) 동경성지 발해석등

- 발해의 수도이자 5경 중에 하나였던 상경용천부지에 있는 거대한 **현무암** 석등
(현재 지명으로는 중국 흑룡강성 동경성지)
- 높이 6m
- 상경용천부지 제1절터에서 출토



IV. 석등

1)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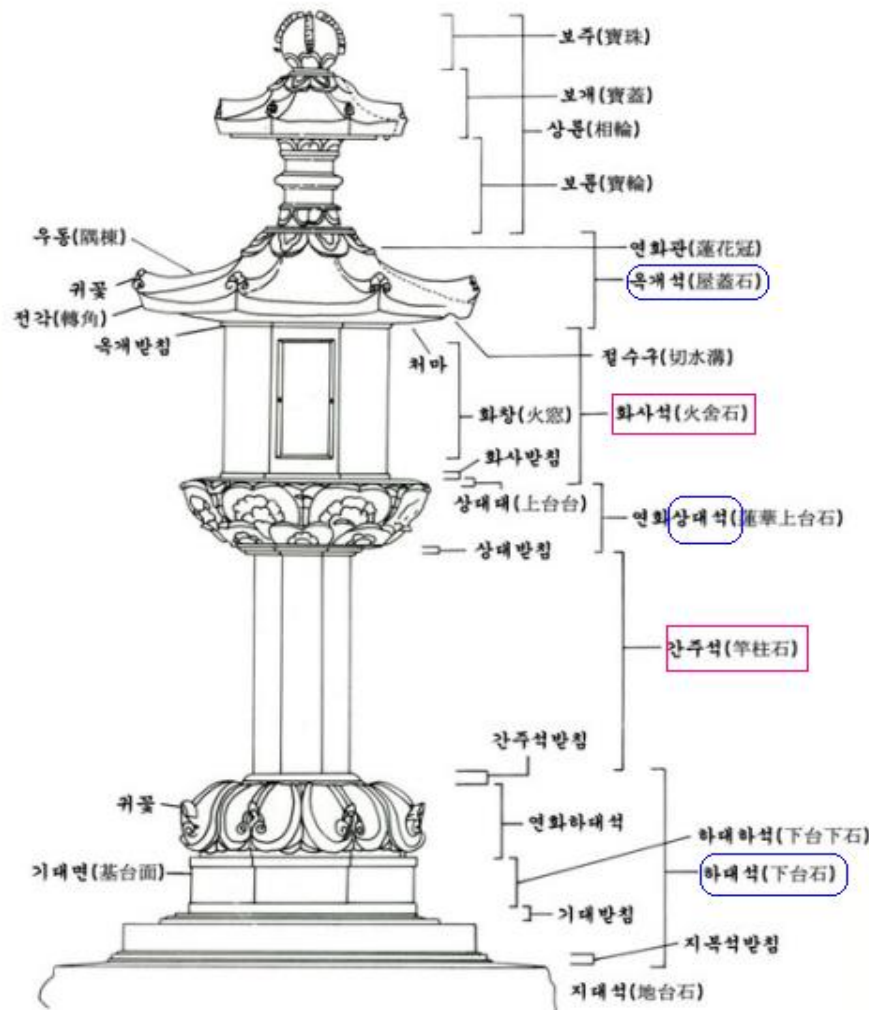
-불을 밝히기 위한 시설로 주로 사찰의 경내, 능묘, 정원 등에 설치

-불교에서 석등은 가람 배치에 따라 불전 앞이나 탑, 부도 앞에 설치되는 종교적 의식구 **(佛燈)**

-능묘 앞에 세워진 석등은 **長明燈**

2)구조

-하대부+간주부(중대부)+상대부



3)양식의 변화

- 삼국시대 석등으로는 익산의 백제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석등 부재
- 현존하는 우리 나라 석등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최고의 제작 연대를 갖고 있는 석등은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 (통신) 8각형 → (고려) 4각형 → (조선/장명등) 4각형

① 통일신라시대(기본 8각 평면)

-8각 화사석/8각 간주석/연꽃장식

<보림사 석등/국보 제44호>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제17호>



▶ 호남지방에 유행한 鼓腹形 간주석(장구모양)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등

<개천사지 석등/보물 제 111호>



②고려시대(기본 4각 평면)

- 4각형 화사석/6각형 화사석 일시 유행
- 원형 간주석/옥개석의 처마가 커지고 두터워짐
- 장명등 등장(개성 공민왕 현릉 앞 석등-이후 조선시대 능묘경영에 계승)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석등>



③ 조선시대(기본 4각 평면)

- 4각형 화사석
- 넓고 두툼하고 짧은 간주석/길고 큰 화사석
- 석등은 불사의 현등적인 면보다는 비종교적 요소에 입각하여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능묘분야로 전환(장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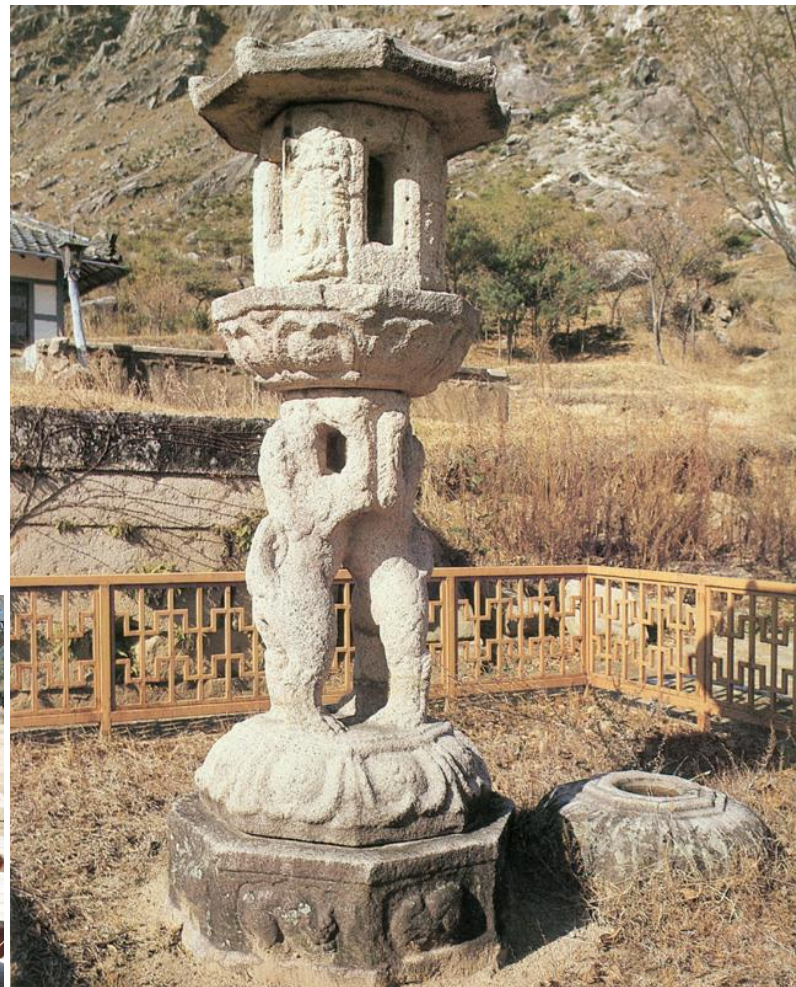


④ 특수형 석등

<영암사지 쌍사자석등(경남 함천)보물 제353호/통신>

<법주사 쌍사자석등(충북 보은)국보 제5호/통신>

쌍사자 석등



<화엄사 사사자석탑 앞 석등(전남 구례)/통신>

인물상석등

